

❖ 정부시책 ❖

전기분야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계획

통상산업부는 최근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고효율 유도전동기 보급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통상산업부는 전력부문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명기기 및 전동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통상산업부는 '93년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고효율 유도전동기 개발을 정부주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조명부문 및 3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을 각각 30%, 5%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 기업이 협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유도전동기를 개발하고, '94. 10월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과 고효율 유도전동기 시제품 성능 검증을 실시하여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기술개발 사업 및 시범보급을 통하여 고효율기기가 개발되었으나, 아직 고효율 조명기기 및 전동기의 보급이 미약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조명 및 전동기의 시장

형태가 가격경쟁 형태로서 고효율기기의 보급에 애로가 있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업체가 많아 기술확보, 품질유지 등이 어려운 형편이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효율기기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에너지절약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체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고효율기기 구매에 적절한 유인책이 부여되지 못한 점이 제약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고효율기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는 현행 32mm 형광램프는 2003년까지, 유도전동기는 2006년까지 전량 고효율기기로의 교체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기생산 공급측면에서는 조명기기 및 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하여 일정 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KS 등 국가기술규격을 고효율형으로 정비함으로써 저효율 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중단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전반적인 고효율기기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부문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신축 건물에 26mm 고효율 형광램프 및 전동기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조달물자 구매시에도 고효율기기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공급사(한전)의 고효율기기 리베이트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고효율 조명기에 대한 리베이트는 지속함과 동시에 고효율 전동기에 대하여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통상산업부는 수요, 공급측면의 시책과 함께 고효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운동 및 홍보활동도 강화함으로써 고효율기기 보급을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에너지가족(GEF)운동의 일환으로 녹색조명운동과 녹색모터운동을 각각 '96년, '97년부터 실시하여 대규모 기업체 및 수용가와

약정을 통해 고효율 조명기기 및 유도전동기를 자발적으로 개체토록 하였다.

아울러, 고효율기기에 대한 제품 목록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고효율기기 사용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고효율 유도전동기 보급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부하면에서는 2006년에는 1996년 기준으로 조명부문에서 1,240천kW, 전동기에서 742천kW가 절감됨으로서 전체적으로 1,982천kW가 줄어들어 1백만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건설 소요가 감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력소비량으로는 조명부문에서 2,975백만kWh, 전동기에서 3,500백만kWh의 전력소비량을 감축하게 되어 6,475백만kWh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기술 복덕방』 開所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각종 신기술을 알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신기술 복덕방'이 문을 열었다. 통상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신기술사업화 지원센터'

를 설치, 개소식을 갖고 고부가가치 신기술의 알선 및 중개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신기술복덕방은 단순히 기술이전 및 알선에 그치지 않고 성장가능성

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 신기술창업 보육센터(TBI) 입주, 벤처자금연계, 기술지도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펴게 된다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신기술복덕방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알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중점을 두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신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확산사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신기술사업화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이전가능한 기술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실용성이 높은 기술정보제공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천리안 또는 하이텔에 무료로 기술거래를 할 수 있도록 On-Line 기술시장을 개설, 기업 또는 개인이 개발한 기술의 등록, 국내외 신기술정보 수록, 기술전문가와와의 만

남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복덕방은 대학·출연연구소로부터 이전되는 신기술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화기술의 TBI 입주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10개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에 대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신기술복덕방을 설립하게 된 것은 그간 국내의 대학·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외기술에 대해서도 국내의 기술자에게 저비용·단기간의 기술획득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술복덕방은 앞으로 미국 스탠포드대등의 Licensing Office를 벤치마킹, 대학 등에 지역기술복덕방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신기술 도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터」 운영

통상산업부는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간다.

우리나라는 '97년부터 WTO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연간 약 5,000

역불에 달하는 23개 협정가입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기업의 진출여하에 따라 이들 협정 가입국 조달시장은 신규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 높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타』는 이러한 해외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존 개도국의 국제입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동 센타는 '97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우선, 『해외조달시장 진출상담반』을 구성하고, 해외조달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개별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기업이 현지입찰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문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분야별 지원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상담반』은 통상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달청,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범 정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요청사항을 수렴, 지원할 계획이므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한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센타』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상담반의 활동과는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79개국 115개 무역관이 수집하는 해외조달시장정보와 외무부 등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해외조달시장 정보를 통합, 접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일 정보지인 해외시장과 PC통신망인 KOTRA-NET를 통하여 업계에 일괄 전파하는 『해외조달시장정보 POOL』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조달시장정보의 발굴과 입수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지를 구독하거나 KOTRA-NET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터』는 '97년중에 “해외조달시장 참가성공사례집 발간”, “해외 정부조달분야 유력 에이전트 발굴” 등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분위기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센터』

- 주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마케팅지원처(거래알선부)
- 전화 : (02)551-4391
- 팩스 : (02)551-4373

『해외조달시장 진출상담반』 구성 및 상담분야

상 담 기 관	상담 및 지원 분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정부조달시장 정보 제공 - 현지 입찰참가활동 관련 지원사항 - 『센타』의 대외창구로서 유관기관별 지원가능 사항 접수 및 안내
통 상 산 업 부	- 정부조달협정 내용 해석, 설명 - 해외조달시장 진출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조 달 청	- 각국 조달제도 및 관행 소개 - 입찰서류 작성방법 등 조달시장 진출 실무상담
해 외 건 설 협 회	- 건설공사. 서비스 입찰정보 입수 및 제공 - 건설공사. 서비스 입찰시장 진출안내

海投 허가절차 申告制로 전환

오는 8월 1일부터 해외투자에 따른 자기 자금조달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주거래은행이나 여신최다은행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환관리규정, 해외직접투자지침 등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투자액 1억달러 이하의 투자액의 10% 이상, 1억달러 초과 때는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당초 내년초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8월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허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투자액 1천만달러 이하는 주거래은행 신고, 1천만달러 초과 5천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신고, 5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 허가로 돼있는 것을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 신고로 일원화했다.

주거래은행이 없거나 기업이 주거래은행 이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할 때는 여신최다은행이나 주거래은행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투자액이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자와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증 출자액과 시설투자용 지급보증액을 합한 해외 총투자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절반이나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등 본사규모에 비해 과대한 해외투자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래은행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본금 잠식상태인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본사가 출자한 자본금의 절반 또는 1억달러 이상이 잠식됐거나 5년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해외현지기업에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도 해외투자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업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투자액이 현지기업 지분의 20% 미만이라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채권자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 공시대상을 해외출자액 대신 출자액에 시설투자지급보증액을 합한 해외 총투자규모로 확대하고 공시내용도 현행 현지법인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등에 총사업규모와 자금 조달방법을 추가했다.

'9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은 1997년도 공업·광업·에너지 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로서
-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시멘트 및 요업, 생활용품등의 제조업체

※ 중소기업의 범위내에서 제외되는 업체 명단(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28호, '96. 6. 21)에 포함된 기업은 제외

-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 하는 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

○ 지정업체 신청 대상업종(전기)

신 청 대 상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분류 및 세세분류)
29142(전기식에 한함), 29225(자장모터식에 한함), 29226(전기식에 한함), 3110, 3120, 3130, 3140, 3150, 3190, 33201(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에 한함)

2. 신청기간

○ '97. 7. 1 ~ 8. 10

조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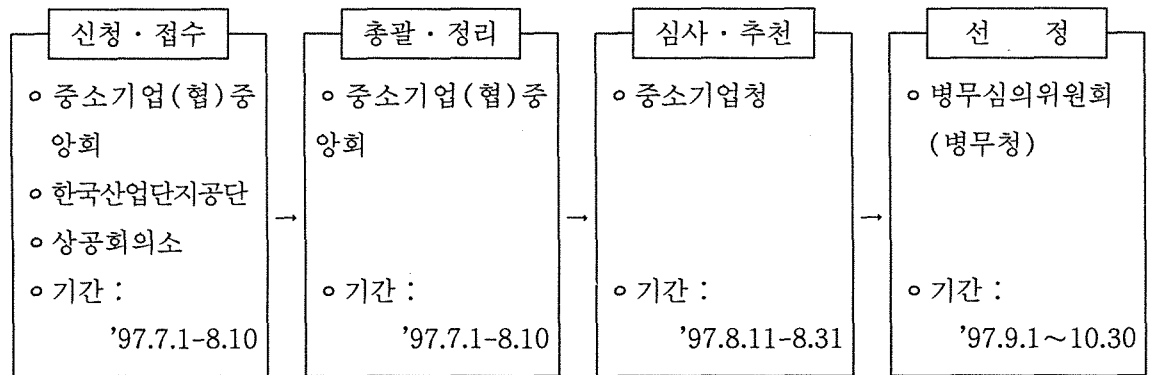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각지
 역공단(구로, 남동, 부평, 주안, 안산,
 북평, 구미, 창원, 울산, 군산, 여천, 광
 주)지원처

3.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과
 및 각 시·도 지회
 - 신청업체 편이를 위하여 53개 지방

○ 62개 지방상공회의소

4. 지정업체 신청절차



5. 신청구비서류

○ 지정업체 선정원서 3부(병역법 시행령 제73조 별지 제53호 서식)
 ○ 지정업체 신청서 3부(접수처에 비치)

○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
 증 사본 3부(광업·에너지산업분야에
 한함)
 ○ 법인 등기부등본 3부(1부는 원본)

- 광업원부등본 3부(1부는 원본, 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증 채굴업체에 한함)
- 공장등록증(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거 개정된 양식
- 기타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부
 - ※ 추천기준표(별첨)

6. 지정업체 추천

- 업종별 신청기업수에 비례하여 추천
- 추천기준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위

(별첨)

'97 추천 기준표

○ 제조업분야

추 천 기 준
(1) 품질경영 우수기업(ISO 9000, ISO 14000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Q마크획득업체,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포함) (2) 100PPM 품질혁신기업 (3) 신기술 인증업체(NT, KT 또는 EM마크 표시업체) (4) 기술지도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유망선진기술기업 포함) (5)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 업체 (6) 지방소재기업 (7)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 공동개발 지역 컨소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기업 (8)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수행업체(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수행기업, 자본재 표준화·공용화 수행기업 포함) (9)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수출비중에 따라 차등적용) (10) 일류화사업 추진기업, CAD/CAM 추진 모델 업체로 지정된 기업, 특허·실용신안권 보유업체 (11)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가 투자한 중소기업 (12) 농공단지 또는 공업단지 입주기업(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외국인 기업전용 공업단지 입주기업,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포함) 또는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13) 노사협력 우량기업 (14) 이달의 중소기업 및 상기 추천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통상산업부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이 주최한 각종 기능경진 대회에서 청장이상의 표창 및 상을 수상한 기업 ※ 지정업체 선정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여성 대표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추천기준별 배정과는 별도로 가점 10점 부여